

# cjhebrew 패키지와 hangul-ucs를 이용한 문서 작성

노바디

2006년 4월 8일

## 1 히브리어 표기

일전에 나는  $\text{H}\text{L}\text{A}\text{T}\text{E}\text{X}$ 과  $\text{a}\text{r}\text{a}\text{b}\text{T}\text{E}\text{X}$ 을 이용하여 한글 문서에 히브리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 글은 같은 일을  $\text{c}\text{j}\text{h}\text{e}\text{b}\text{r}\text{e}\text{w}$  패키지로 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다.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1

한 단어씩 살펴보자.  $\text{בְּרֵאשִׁית}$ 은 “맨처음”이라는 의미. 유명한 단어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text{בָּרָא}$ 은 “창조하다”라는 뜻.  $\text{אֱלֹהִים}$ 은 복수형으로 쓰였으나 이것은 장엄복수로 취급한다. 즉, E 문서에서 일관되게 쓰는 신명(神名). 우리말로는 **하느님**이다. 일찌기 전택부는 “하나님”이라는 통상 쓰이는 신명이 와전된 것임을 밝히고 원래 우리말인 “하느님”으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 (『한국인 神名攷』).  $\text{אֶת}$ 은 하늘,  $\text{אָרֶץ}$ 은 땅이다. 하늘이 복수형을 취하는 것이 재미있다.

맨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太初에 하나님이 天地를 創造하시니라.

개역의 번역문체는 매우 독특하여 나름대로 향취를 지니고 있다. 버리기 아까운 문체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느낌이 들지 아니하는 것은 어쩔수없다. 게다가 신자와 비신자 사이를 언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폐쇄적이 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이 성서적 문체라는 반성도 있다.

### 3 그리스어와 함께 쓰기

이따금 구약 주석을 하다 보면 LXX를 인용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그리스어를 섞어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늘상 하듯이 babel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LXX에서 어떻게 옮겼는지 보기로 하자.

*ἐν ἀρχῇ ἐποίησεν ὁ θεὸς τὸν οὐρανὸν καὶ τὴν γῆν*

*ἐν ἀρχῇ*는 요한복음에서도 사용되는 유명한 구절이다. 즉, **בְּרֵאשִׁית**에 해당한다.

그리스어를 쓸 때, tilde(~) 문자를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라. greek-text 입력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 문자 사용을 위해서는 좀더 복잡한 설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고 보기로 하였다.

### 4 성공

대략 성공이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모두 transliteration 방식으로 입력해야 한다는 것인데, 원래 한국어 문서에 이 언어 단어 또는 구절 몇 개를 섞어쓰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큰 불편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안다. 혹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